











각각한 힘을 끌어당기면서도 그 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다.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'나를 끌어당기는 힘'이라는 표현은 그의 내면에 있는 강렬한 열정과 욕망을 잘 드러낸다. 이처럼 그의 글은 깊은 철학과 감정을 담아내며 독자를深深히 흔들어놓는다.







